

# 화순군, 7개 바이오기업 유치... 540억 투자 협약

### GC녹십자 300억원·프로엠택 100억원 등... 105명 고용창출 기대 전남도·완도군과 공동 투자유치설명회...미래 먹거리 개발 '청신호'

화순군이 500억 원대 바이오산업 투자유치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사업 개발에 청신호를 켜졌다. 화순군은 지난 26일 서울 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7개 바이오기업과 5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화순군은 전남도, 완도군과 공동으로 '전라남도 바이오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바이오 분야 투자유치에 나섰으며 설명회는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13개 기업의 투자 규모는 총 830억 규모로 전남 바이오산업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이중 7개 기업과 총 54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GC녹십자(투자 협약

300억), ㈜프로엠택(100억), 아스티스(50억), ㈜자임당바이오(20억), 제넨셀(20억), 팜스빌(20억), ㈜아이큐어비엔피(30억) 등이다.

7개 기업의 투자 규모는 10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돼 군은 이번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투자유치설명회는 국내외 유력 바이오기업 유치와 우수 벤처·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투자협약식, 투자설명회, 투자상담회로 진행됐다.

특히 전남도 바이오산업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코스타드 성장 기업인 박셀바이오(대표 이재중)와 바이오 FD&C(대표 정대현)가 기업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두 기업은 화순백신산업특구 생물약산

업단지에서 창업해 코스타드에 상장한 기업으로 화순군과 전남도의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투자 여건의 우수성을 보여주며 투자를 이끌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서는 화순 바이오기업 2개사(씨엔큐어·에이엔셀바이오), 미래에셋벤처투자, 에스엘 인베스트먼트 등 투자사가 참석해 기업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성훈 국회의원, 신우철 완도군수,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등 정관계 인사, GC녹십자, ㈜셀리드, 박셀바이오 등 바이오 기업, 미래에셋벤처투자, 에스엘 인베스트먼트 등 투자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 생물약 제2산업단지 조성, 백신특구 확대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보를 통해 전남광주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지난 26일 서울 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전라남도 바이오 기업 투자유치설명회'에서 화순군과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백양단풍축제'가 29~30일 장성 백양사에서 펼쳐진다. 장성 백양사 전경. <장성군 제공>

## 4년의 기다림...백양사 단풍축제 오세요

### 29·30일 명창 김영희·가수 남진 등 공연...퀴즈 맞추기 등 이벤트

"이번 주말 울긋불긋 붉게 물든 백양사에서 단풍놀이 어떠세요?" 장성 백양사에서 펼쳐지는 '백양단풍축제'가 오는 29일 개막한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해 4년 만에 재개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을이 주는 선물, 울긋불긋 얘기단풍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무엇보다 인기 가수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된다. 29일 백양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어지는 공연에는 매년 전통예술보존회의 가야금 병창으로 시작해 가수 박진도, 민지 등 트로트 가수와 명창

김영희, 테너 박경관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30일에는 가수 남진과 김용림, 진주아 등이 출연해 백양단풍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정겨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장성 특산물인 단감을 이용한 단감 쌀기, 찰떡 매치기, 가래떡 시식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백양단풍축제를 주제로 한 퀴즈 맞추기와 단풍 캐리커처, 전통차 시음, 목탁전시회, 오운석 화백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또 장성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 판매장도 열린다. 일주문 일원에서 운영되는

판매장은 축제 이후인 11월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백양사 일대는 아이 손바닥 같이 작고 앙증맞은 얘기단풍으로 유명하다. 입구에서부터 백양사로 향하는 길가에 오밀조밀 늘어서 있다.

봄에는 연두색으로 반짝이고, 가을에는 오색 빛깔을 입는데 그 모습이 오래된 사찰 그리고 수려한 백양산 절경과 조화를 이루며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전국 어느 곳과 비교해도 장성 백양사만큼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곳은 없을 것"이라며 "단풍이 붉게 물든 주말, 4년 만에 열리는 백양단풍축제에서 의미 있는 시간,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양단풍축제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 문화관광과(061-390-7240)로 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장성 종합운동장 앞 만개한 코스모스가 가을 정취를 물씬 느끼게 만들고 있다. 지난 8월 말에 파종한 코스모스는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진군 제공>

## 담양 우수공예품 한자리에

### 29·30일, 11월 5·6일 '공예場IN'

담양군의 우수공예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담양군은 (사)담양군공예인협회와 함께 29일과 30일 그리고 11월 5일, 6일 공예품 전시 판매 행사 '공예場I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예기술의 계승 및 발전,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담양군 공예인협회 회원 20개사가 참여하며 죽녹원 분수대 일원에서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금속, 대나무, 도자기, 목, 섬유, 차, 가죽 등 실생활에 사용하는 생활 공예품을 비롯, 장인의 혼이 깃든 섬세한 공예품까지 만나볼 수 있다. 또 대나무 지압길 걷기, 다도, 도예, 물레 돌리기, 가죽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 또한 풍성하게 마련된다.

한편 담양군공예센터 '장인각'에서도 11월 6일까지 담양군공예인협회 회원전이 열려 50여 점의 우수한 지역의 공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행사가 담양 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나주밥상' 브랜드화 착수

### 시, 대표 맛집 소비자 설문...향토음식 명맥 보존·관광자원화

나주시가 향토 음식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먹거리 관광 명소화 위한 '나주밥상' (가칭) 브랜드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나주시는 '대표(나주밥상 지정) 맛집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소비자 인식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나주밥상 브랜드화'는 대대로 이어져온 나주 향토음식의 명맥 보존, 나주만의 특색이 있는 밥상 육성을 통해 먹거리 관광자원화를 도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역 대표 맛집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설문지는 ▲나주시 음식점에 대한 인식조사(6분항) ▲나주시 대표 맛집 지정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9분항) ▲소비자 제안사항 등 3개 부문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나주시 음식점 인식조사는 '가볼만한 맛집', '선호 음식점', '나주 대표음식', '외식 음식점 선정 기준', '음식점 정보 수집 방법', '음식점 개선사항' 등을 묻는다.

대표 맛집 지정 소비자 인식 조사는 '대표 맛집 지정 시 우선 순위', '대표 맛집 선호 음식', '1인 기준 적정 식사 가격', '대표 맛집 지정을 위한 개선점', '나주시 관내 음식점 중 가장 맛있다고 평가되는 업소 및 메뉴' 등을 다룬다.

참여 방법은 QR코드(사진) 스캔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코드 스캔은 시청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조사 이를 차인 지난 25일 참여자 수가 800명을 돌파한 상태다.

시는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 전담부서인 '나주음식문화팀'(먹거리기획과)을 신설, 향토음식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첫 발을 내딛었다.

나주음식문화팀은 '나주밥상 대표 맛집 브랜드 개발', '나주 대표 맛집 선정 및 환경개선', '나주향토음식 전수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운영', '음식문화 스토리텔러 육성', '지역 식도락 여행 콘텐츠 개발', '나주밥상 요리경연대회 개최' 등 나주밥상 브랜드화 단계별 세부사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강진과 장흥 물 나눠 쓴다

### 장흥 분토마을~강진 상·하분마을 수돗물 통수식

장흥군이 강진군과 상수관을 연결해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던 강진 일부 마을에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졌다.

장흥군은 지난 25일 강진군 하분마을에서 상수관로 통수식을 갖고 강진군 상·하분마을에 수돗물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분토마을과 강진군 하분마을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이웃마을이다.

분토마을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만, 상·하분마을은 상수도시설이 따로 없어 해마다 갈 수기에 식수 부족을 겪고 있었다. 이에 양 지역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수도시설 연계 운영을 실행에 옮겼다.

수도관로를 함께 쓰면서 강진군은 약 8억 원의 시설투자비를 절감하고 87가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장흥군은

상·하분마을 수도요금으로 연간 약 1300만원의 세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수도지원센터는 이번 상수관로 연결을 제안하고 업무협약과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상수관로 통수식에는 전남도, 장흥군, 강진군,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남연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수도지원센터장은 "장흥군과 강진군의 수도시설 연계 운영으로 주민들의 물 복지가 향상됐다"며 "이 같은 상생협력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과 강진군은 오랜 세월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해 왔다"며 "양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공동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마량놀토수산물시장, 올 마지막 장날은 29일

### 경품권 추첨·기념품 증정 이벤트

올해 마지막인 전남 강진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29일 마량항 중앙파제 일원에서 열린다.

강진군은 마지막 장날을 기념해 경품권 추첨과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한다.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마량놀토수산물시장 상인회가 3만 원 이상 물품 구매자에게 배부했던 경품권을 모아 1등부터 4등까지 총 16명의 당첨자를 추첨한다.

1등 1명에게 냉동고, 2등 2명에게 김치냉장고, 3등 3명에게 전기밥솥, 4등 1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전달한다.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29일 행사를 끝으로 잠시 휴식을 갖고 내년 4월에 다시 열린다.

군은 내년도 시장 개장을 위해 행사장과 전판대 카페 시설물을 정비하고 시장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마곡진 강진군 해양산림과장은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올해 마지막 장날을 끝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미뤄지다 지난 5월 7일 3년만에 개장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마량놀토수산물시장에는 올해 5만4000여명이 다녀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